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www.seungwongroup.com 홈페이지 참조]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83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18일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고물가·경기침체… 추석 밥상 화두는 '민생'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고단한 일상에 '정치 무관심'
지역 정치권에 실망 고착화
국회의원 현수막 크게 줄어

"잘 쉬고 갑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광주송정역에 명절을 고향에서 보낸 후 서울행 열차에 타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흘 간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었던 만큼 3000만 명의 귀성객들이 고향과 가족·친지를 찾아 민족 대이동을 했다. 그래서 인지 이번 추석 연휴는 더욱 뜻 깊고 소중한 명절의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의 소중한 기분도 잠시 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단한 일상과 태풍 피해가 추석 밥상머리 화제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유가와 환율·금리 등 삼중고로 인해 민생 회복은 더디기만 한 탓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금리 인상마저 겹쳐 빚을 갚아야 하는 가정과 기업에서는 삼중고, 사중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햅쌀 수확철을 맞아 쌀값을 걱정하는 농심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주부 장모(54)씨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로 3년 만에 갖는 가족·친지들의 모임에 맞춰 음식 장만을 하는데, 최악의 먹거리 물가에 너무 놀랐다"면서 "친지들끼리 대부분의 시간을 앞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51)씨는 "민생 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 친구들과 후배들의 걱정이었다"면서 "정치권에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정치권이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에 대한 냉랭한 민심은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민심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컸지만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민생의 현장에서 치열함을 보이지 않았고 과감한 정치적 도전과 응전의 모습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결집보다는 각자도생에 안주하면서 '호남 정치의 실종'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전히 죽기살기식 정쟁 대결만 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호남 민심 눈높이에 맞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냉랭한 반응이 주를 이룬 것이다.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로,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에 지역 민심은 더욱 정치권을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모습에 정치권이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조차 갖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지역 민심은 정치에 대한 실망을 넘어 무관심으로 방향을 튼 상태여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듯 명절 때면 거리 곳곳에 나붙었던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명절 인사를 위한 현수막도 이번 추석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정치인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치열함을 보이지 않았고 과감한 정치적 도전과 응전의 모습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이 결집하기 보다는 1년 6개월 뒤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을 위해 각자도생에 안주하면서 '호남 정치의 실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형성된 바닥 민심은 오는 2024년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 과오를 반성하고 지역민의 생각과 바람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경, 광주 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태풍 무이파 중국으로 … 광주·전남 큰 영향 없다

내일 오전까지 비 10~50㎜ 예보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광주·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광주지방기상청이 12일 밝혔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는 14일까지 때때로 비가 오고 일부 해안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도 불겠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무이파는 중국 연안을 따르는 경로를 유지해 오는 15일 오전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지나 16일 오전 산둥반도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무이파가 유입시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14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10~50㎜.

비와 함께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 풍속 최대 20m(초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또한 기상청은 13일 새벽을 기해 거문도와 초도, 13일 오후 6시부터는 여수·고흥·완도·진도에 강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특히 13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구름 낀 날씨와 비 영향으로 13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4~26도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14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7~31도로 올라 다소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英여왕 장례·유엔총회 참석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尹대통령, 5박7일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떠난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런던에 총집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핵심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 사회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의 현지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기조연설 내용과 관련,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귀향 대신 도서관…MZ세대들 우울한 추석" ▶6면
굿모닝 예향 - 회색 도시에 색을 칠하다 ▶18·19면

광주FC, K리그2 우승까지 '3승' 남았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B
This is for new dimens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4, 고속도로: 3.8) 1회 충전거리(km) : 313, 공차중량(kg) : 2110, 배터리 용량(kWh) :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